

“5년만의 코믹장르 웃참하느라 고생했죠”

디즈니+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 김동욱

실적 쫓겨 강력반에 엘리트 반장 액션 수사물
11월 1~4부 공개...20부작, 매주 수요일 2부씩

“동방유빈은 영특하고 현명해 보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짧고 재미있게 표현하면 ‘맑은 눈의 광인’이죠.”

배우 김동욱이 디즈니+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 (이하 ‘강매강’)에서 독특하고 영동한 매력의 엘리트 형사로 변신한다.

김동욱은 5일 ‘강매강’ 제작발표회가 열린 라마다 서울신도림호텔에서 이번 작품의 배역 동방유빈을 “민망해서 다정함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휴머니즘이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작품에 출연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저보다 먼저 박지환, 서현우 두 분이 캐스팅돼 있어서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 어떤 배우라도 이 두 분이 캐스팅된 작품에 같이 출연하는 걸 고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이 코미디에 출연하는 것은 2019년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그는 열혈 근로감독관 조진갑을 연기해 MBC 연기대상을 받았다.

김동욱은 이날 오랜만의 코미디 출연에 대해 “개인적으로 코미디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좋은 작품에 출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매강’은 전국에서 실적이 쫓겨한 강력반에 엘리트 반장이 부임하면서 최강의 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코믹 액션 수사물이다.

김동욱이 쫓겨 강력반에 지원해서 부임하는 엘리트 반장 동방유빈 역할을 맡고, 박지환은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갖춘 형사 무중력으로 변신한다.

연출을 맡은 안중연 감독은 두 등장인물의 독특한 이름에 대해 “강력반장이란 무거운 직책에 가벼운 이름을 쓰면 ‘반전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방유빈이라고 지었고, 무중력을 강한 힘이 느껴지는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썼다”고 설명했다.



북아시아 초원길 찬란했던 ‘유목 문화’

애플문화전당 ‘아시아박물관 산책’ 다섯번째 강좌 진행
광주일보·호남문화재연구원 등 주최...9~12월 총 8회



올해 초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개막한 ‘문순으로 열린 세계 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유목민족, 몽골, 흉노, 거란과 여진, 바이칼 소수민족..

중앙아시아 일대 드넓은 초원은 유목민들에게는 생존의 터전이다. 유목민들은 초원길을 근거로 오랫동안 그들의 문화를 일궈왔다. 특히 초원길은 동유럽과 중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전신으로, 이곳에선 찬란한 문화가 피어났다.

북아시아 초원길을 근거로 유목민의 삶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격주 수요일) ‘아시아 박물관 산책’ 다섯 번째 강좌를 진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 강좌가 지난 4일 열렸다. 아시아문화박물관 문화교육실4에서 8회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강좌는 ACC 외에도 광주일보사(회장 김여송), (재)호남문화재단(이사장 임영진), (재)아시아문화재단(이사장 김성중)이 함께 마련했다.

이에 앞서 ACC는 올해 초 아시아문화박물관(상설전시실1)에서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전을 개막한 바 있다. 현재도 ‘문순’을 모티브로 동남아시아 해상 교역 등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먼저 4일은 이상복(전 울산박물관장) 강사가 바위에 그려진 그림이나 새겨진 글자인 ‘암각화’를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열었다. 이어 11일에는 강인욱 경희대 교수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서북부 일대 스텝 지역에서 생활했던 이라케 유목민

족인 ‘스키타이’를 모티브로 시민들을 만난다.

25일에는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몽골고원과 만리장성 지대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목국가인 ‘흉노’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당초 흉노는 몽골 초원에서 말 등 가축들을 키우며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다.

10월과 11월에도 다채로운 주제로 강좌가 이어진다. 박양진 충남대 교수는 ‘선비와 돌궐’을, 홍형우 강릉원주대 교수는 ‘거란과 여진’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초원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몽골이다. 이번 강좌에서도 몽골 역사와 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김장구 동국대 교수가 ‘몽골’을 주제로 당대의 역사를 다채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바이칼 소수민족’ (이건욱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북아시아와 한국’ (오승전 주한몽골대사) 등 강의가 이어진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이번 초원길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역사문화 강좌와 아울러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문순으로 열린 세계’전은 아시아 지역을 복합적,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며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좌는 무료. 참가신청은 ACC 누리집 또는 호남문화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년 아카데미상 출품작은 ‘서울의 봄’

영진위, 만장일치 선정...예비 후보 선정 여부 올해 말 확정

지난해 천만 영화 반열에 오른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 미국 아카데미상(오스카상) 국제장편영화 부문에 출품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내년 3월에 열린 제97회 미국 아카데미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한국 영화 출품작으로 ‘서울의 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봄’은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정됐다.

영진위는 “긴장감을 다루는 영화의 극적 재미, 배우들의 연기 향연을 미장센의 영역으로 극대화한 연출력, 역사에 대한 탁월한 통찰 등을 고르게 포괄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영진위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

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 의뢰에 따라 해마다 국제장편영화 부문에 출품될 한국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지난해 영진위가 선정할 출품작은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였다.

국제장편영화 부문은 미국의 국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의 봄’의 예비 후보 선정 여부는 올해 말 확정된다.

배우 황정민과 정우성이 주연한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주도로 사조직 하나회가 군 지휘권을 장악한 사건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지난해 11월 개봉해 1312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BTS ‘아이돌’ 뮤비 13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아이돌’(IDOL)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 수가 13억건을 돌파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4일 밝혔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8시께 13억뷰를 넘겼다.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3억뷰 이상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아이돌’ 뮤직비디오는 한국 전통 양식이 가미된 독특한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방탄소년단 멤버

들의 강렬한 퍼포먼스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사물놀이와 탈춤 등 한국적 요소에 그래픽 효과가 더해져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이돌’ 뮤직비디오는 2018년 미국 ‘2018 E!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2018 E! People’s Choice Awards)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를 수상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아이돌’을 포함해 총 39편의 1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